

지역 소식통

고창군, 농민 공익수당 추석 명절 전 지급

고창군은 군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로 농민 공익수당 60만원을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추석 명절 전에 지급한다.

지급대상자는 1만734농가로 지난 2월부터 4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주소 및 농업경영체 유지, 농업 외 소득 한도에 중복 신청 검증 등을 통해 최종 선정되었다. 총 지급규모는 64억원 상당으로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해 올 한해 폭우와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가의 안정을 돕고 명절 장보기 등에 사용될 것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이 기대된다.

고창군은 집중 지급 기간을 18일부터 22일까지 정하고 서류 형태로 신청한 농업인들에게 마을회관으로 방문하여 직접 상품권을 지급하고 카드형으로 신청한 대상자들은 본인이 소유한 카드에 60만원이 자동으로 충전된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국립종자원 전북 지원 불법·불량종자 단속

정읍시는 국립종자원 전북지원과 합동으로 7일부터 불법·불량종자 유통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유통 단속은 정읍지역에서 불법·불량 채소종자, 묘 등 종자를 생산·판매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단속 내용은 종자업(육묘업 포함) 등록여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여부, 보증 받지 않은 종자 판매, 유통종자의 품질표시 등 종자사업법 위반사항 등이며 위반할 경우 종자산업법 규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종자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기간 중에는 종자·묘의 유통관리 제도 설명 및 홍보 팸플릿을 배포하는 등 계도 활동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가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종자(묘) 구입 시 품질표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 후 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선정

정읍시, 귀리 중심 밀·콩·쌀 융복합 헬시푸드 상품... 2025년까지 사업비 10억 확보

정읍시가 전국 지자체간 치열한 경쟁을 뚫고 농촌진흥청 주관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특화작목 및 R&D 연구개발기술 농업·농촌자원을 연계한 융복합 기술보급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특산품 육성 및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10억원을 확보했다.

시는 향산화·항치매 기능성분을 함

유하고 있는 귀리를 중심으로 밀, 콩, 쌀을 융복합 해 시장성 있는 헬시푸드 상품을 개발할 방침이다. 또한 생산·가공 유통-전문가 네트워크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브랜드화해 홍보 마케팅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귀리는 미국 타임즈에서 세계 10대 슈퍼푸드라 선정하며 주목받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생소한 곡물이었던 귀리는 지난 2004년 정읍명품귀리사업단과 농촌진흥청이 재배육종연구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재배에 성공했

다.

특히 국산 토종종자를 사용한 우수한 품질의 귀리를 생산·가공해 지난 2018년 대통령 표창과 2019년 도지사 인증상품 인증을 받기도 했다.

농촌자원과 이주연 과장은 "지역 특산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융복합 상품을 정읍시 대표브랜드로 정착시키고 지속가능한 사업체계를 구축해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정읍시는 6일 정읍시예술회관에서 양성평등주간을 맞이해 기관단체 및 여성단체 회원 등 시민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을 개최했다.

정읍시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안혜준)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사회라는 슬로건 아래, 성에 의한 차별과 소외를 없애고 일의 영역을 남·녀로 구분하지 않는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구현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신바람디스코 장구의 공연으로 시작했다. 1부 행사인 기념

식에서는 양성평등 유공자에 대한 표창, 장학금 전달, 양성평등 실천을 위한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다.

2부 행사에서는 팝페라 그룹 '진진 클래식'과 개그맨에서 트로트 가수로 전향한 김재룡(개명전 김재욱) 가수의 공연으로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장식했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양성평등의 실천 의지를 다지는 시간과 함께 유례없는 무더위와 폭우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여름을 보냈던 지친 우리에게 흥겨운 시간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이학수 시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이 자리가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양성평등을 넘어 행복한 삶의 가치에 대해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며 "양성이 평등한 성숙한 도시 정읍, 시민 중심 으뜸 정읍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국민체육센터 붕괴·대형화재 대응... 재난현장과 재대본 실시간 연계 훈련

정읍시는 6일 국민체육센터에서 지진으로 인한 붕괴 및 대형화재와 같은 대규모 복합재난에 대비한 유관기관 간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정읍소방서 및 17개 기관 530명과 함께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범정부 차원에서 재난대응체제 확립을 목적으로 발생 가능한 재난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전국단위 종합훈련이다.

훈련은 △규모6.5 지진발생 △국민

체육센터 붕괴 및 가스폭발로 인한 대형화재 △최초 상황 접수·전파 △긴급구조체대난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 가동 △재난수습·복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행정안전부의 훈련 중점사항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해 현장에서의 통합지원본부가동과 시 청사에서의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훈련을 동시에 진행하는 실시간 통합연계를 중점

으로 시행했다.

아울러, 시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국민체육센터도 참가해 훈련과정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훈련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학수 시장은 "2023년 안전한국훈련은 실제상황과 유사하게 실시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실질적 대응역량을 높이고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재난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해 시민이 신뢰하는 재난대응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군민 생활 안정·지역상권 활성화'

고창군, 추석맞이 고창사랑상품권 1인당 100만원까지 10% 할인판매

고창군이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지난 1일부터 고창사랑상품권 구매안도를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여 10%할인판매를 시작했다.

이번 할인판매는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뒤 승인받아 시행하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군민 생활안정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발행된 고창사랑상품권은 시행 5년차에 접어들면서 가맹점이 2900개소에 이르며, 명실공히 군민들의 소비생활의 중심 매체로 자리 잡았다.

군은 올해 8월까지 고창사랑상품권을 총534억원을 판매하여 지난해 연간 판매액 500억원의 97%를 달성했다. 구입 후 3개월 이내 대부분 소비가 이루어져 고창사랑상품권의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3년 고창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고창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고창읍성과 고인돌 박물관 입장료 전액을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고창전통 시장 상품권 환전율이 지난해에 비해 27%가 증가하는 등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창사랑상품권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분석 결과 가맹점 이용객이 7% 증가, 소비의 역외 유출 방지로 생산성이 증가하는 등 지역 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소비의 선순환 구조로 소상공인과 영세 상인들의 매출액 증가에 효과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할인행사가 군민 가계 부담도 덜고, 관내 소상공인 매출 증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부안군은 만성퇴행성관절염 등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인공관절 치환술(술관절) 진단을 받은 만 70세 이상 부안군 거주 1년 이상,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는 어르신이다.

지원범위는 한쪽 무릎 기준 100만원, 양측 200만원 한도로 급여의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를 지원한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진단서(소견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지참해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반드시 수술 전에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먼저 보건소에 제출한 후 대상자 여부 결정 통보를 받고 3개월 이내 수술을 받아야 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발생한 의료비(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는 소급해 지원하지 않는다.

부안군 관계자는 "지난 2022년 12월 노인 무릎 인공관절수술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1월부터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취약계층 찾아가는 소비자권익증진 행사

고창군이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군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찾아가는 소비자 권익증진 행사'를 6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었다.

이날 행사는 고창군과 한국소비자원, 전라북도 및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소비자피해 예방 교육과 소비자 피해상담, 가전제품 무상 수리, 자동차 무상점검, 어르신 장수 사진 촬영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진행됐다.

특히 보이스피싱 및 허위·과대 광고 건강기능식품 구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교육하고, 장수 사진 촬영을 병행해 어르



신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LG전자, 삼성전자, 쿠쿠, 쿠첸 등 전자제품 판매사가 휴대폰, 밥솥, 청소기 등의 소형가전 무상점검 부스를 운영했다. 국내 5개 자동차 회사에서는 자동차 성능 점검 및 와이퍼 교체 등의 서비스로 군민의 안전 또한 함께 챙겼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